



전남TP, ‘뿌리산업 선도기업’ 사업설명회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 11일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본원에서 ‘2025년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뿌리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기반기술을 제공하는 핵심산업으로, 전남테크노파크는 ‘신산업 및 디지털 전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첨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전략을 중심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사업은 전라남도도와 15개 시·군(고흥·곡성·광양·나주·담양·목포·무안·보성·순천·여수·영광·영암·완도·장성·함평)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뿌리기업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고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며, 2차 사업설명회는 영암에 위치한 전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센터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준명 기자**



광주여대, 대학 혁신 위한 교직원 특별강연

광주여자대학교가 대학 혁신과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사진)

14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제회의장에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혁신은 열정에서 나온다’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 속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 함양을 위해 기획됐다.

강연에는 광주시와 행정자치부에서 41년간 공직 생활을 하고, 현재 2025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이연 강사가 초청됐다.

이연 강사는 공직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감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자세를 당부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소방, 파라과이 자위소방대 교육 지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3년간 추진해 온 ‘파라과이 자위소방대 역량 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

광주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월27일~지난 5일까지 파라과이 현지에 파견된 교육훈련단 6명이 자위소방대원 42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최근 무사히 귀국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훈련단은 광주소방의 선진 소방기법과 재난 유형별 대응 방안을 전수하며, 파라과이 소방관들의 현장 대응능력과 응급의료 서비스 수행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펌프차, 구급차 등 총 49대의 소방차를 파라과이에 지원해왔으며, 올해도 소방차 6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장비 지원은 파라과이의 소방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아 기자**



전남 고교생, 체육대 입시 실전 대비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체육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해 입시 전략 특강과 실기 모의평가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진)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장흥에서 도내 64개 고교 330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2025 대입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2026학년도 체육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전 중심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체육대학 입시 전문가의 특강이 열려 대학별 전형 구조, 실기 준비 요령,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구체적인 입시 정보를 전달했다. 오후에는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실제 대입 실기 시험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기 모의평가가 진행됐다.

실기 종목은 대입 평가에 반영되는 핵심 종목 위주로 구성됐으며, 평가 결과는 개별 자료로 제공돼 향후 진학상담에 활용된다. **노병하 기자**



전력거래소,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워크숍

전력거래소는 지난 11일 전력거래소 1층 대강당에서 2025년 여름철 전력수급 대비 계통운영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여름철 계통운영 실무자 워크숍은 200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3번째를 맞이했다. 워크숍은 여름철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대책을 공유하고 계통운영 현장 견학을 통해 제도개선 방향과 운영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이사장 직무대행의 축사로 시작된 행사는, 계통운영 분야 주제발표와 제도설계 분야 주제발표 및 중앙전력관제센터 급전관람실 현장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고 기후특성과 여름철 전망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안정대책 △여름철 전력계통 운영방안 △화력 발전설비 유연성 개선 사례 소개 및 시장제도 개선 방향 △차기 발전계획 도입방향 순으로 5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최권범 기자**



광주대, 외국인 유학생 ‘특별 레크리에이션’

광주대학교는 지난 9일 교내 호심관 3층 소강당에서 외국인 유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여름학기 유학생 특별 활동(레크리에이션)’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14일 광주대에 따르면 국제협력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학업에 지친 유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팀을 나눠 펼치는 다양한 게임과 한국 전통놀이 등을 체험했다.

행사 중간에는 한국 관련 퀴즈와 간단한 공연도 더해져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도했다. 특히 프로그램 말미에는 간식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되어 유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유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한 좋은 기회였다. 공부 외에도 이런 활동이 있어 학교생활에 활력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안녕인사동, MOU 체결

‘광주 버스킹월드컵’ 서울 홍보 등

광주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복합문화공간 안녕인사동과 버스킹 문화 활성화 및 문화 예술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해 버스킹 공연 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구문화관광재단은 안녕인사동의 버스킹 공간 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버스킹 공연팀을 섭외 및 추천해 안녕인사동 공간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이뤄지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안녕인사동은 광주버스킹월드컵을 통해 추천되거나 신청하는 버스킹 공연팀에게 1층 야외 버스킹 공간과 4층 ‘인싸굴’이라고 불리는 8090 레트로 컨셉의 야장 공간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공연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기 시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안녕인사동은 광주버스킹월드컵의 서울 지역 홍보를 위해 건물 내·외부 공간을 활용한 홍보 활동에 협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구문화관광재단은 광주버스킹월드컵 관련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등)을 제공하고 안녕인사동은 이를 효과적으로 비치 및 게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 기관의 온·오프라인 채널(홈페이지, SNS,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도 상대 기관의 활동 및 버스킹 공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시 버스킹 활성화 및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 마케팅 및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버스킹 공연 활성화 및 공간 운영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류하며, 필요시 관련 전문가 및 인력 교류를 통해 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문창현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안녕인사동과의 협력을 통해 광주버스킹월드컵의 서울 지역 홍보를 강화하고, 역량 있는 버스킹 공연팀에게 새로운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버스킹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중국 온주의대 교수진, 화순전남대병원 조제 현장 견학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해외 의료계의 주목을 받으며 국제 교류의 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중국 온주의과대학(Wenzhou Medical University)과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진이 병원을 방문해 약제부 임상 현장을 견학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온주의과대학과 전남대학교가 지난 2018년 체결한 ‘약학전공 박사과정 중외합작 프로그램’에 따른 학술 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온주의과대학에서는 사오 지안 대학원장, 쉬에 상양 기초의학과 학장, 공웨이타오·첸 가오치 약학과 부학장이 참석했으며 전남대학교에서는 김영란 약학대학장을 비롯해 윤소미·권세호 조교수가 동행했다.

참관단은 병원 약사의 역할과 약제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동 약국

과 무균조제실 등을 직접 둘러봤다.

또한 자동 조제 시스템과 무균 조제 환경, 환자 맞춤형 약제 서비스의 실제 운영 과정을 살펴보고 실무 담당자들과 질의응답 및 의견 교류도 진행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신 항암주사 조제 로봇, 전자동 조제 시스템 등 혁신적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약물 치료의 정밀도와 안전성을 높여왔다. 특히 임상 약학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이번 참관은 우리 병원의 의료 시스템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료 임상 교육 분야의 국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